THE FACT

인쇄하기 취소

포항,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 뿌리 내린다

㈜에이엔폴리 외 7개사(451억원) 지역에 재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 체결

입력: 2020.08.26 15:45 / 수정: 2020.08.26 15:45

26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가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포항시 제공

㈜에이엔폴리 외 7개사(451억원) 지역에 재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 체결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포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26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가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 8개사 중 7개사는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자금 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포스텍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 ㈜바이오컴(대표 류봉열), 포항TP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이너센서(대표 강문식), ㈜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 ㈜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이 있고,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으

로는 ㈜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이며, ㈜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천848㎡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인쇄하기 취소

Copyright©tf.co.kr